

대학본부 “등록금 환불 불가, 강의 품질 유지에 노력”

2020학년도 제1차 학생대표 정기 간담회 진행, 본교 코로나19 대응 조치 질의 이어져...



▲학생대표 정기 간담회에서 이창원 총장(좌)과 박민수 총학생회장(우)이 발화하고 있다.

지난 3월 19일, 상상관 컨퍼런스홀에서 '2020학년도 제1차 학생대표 정기 간담회(이하 간담회)'가 진행됐다. 본교는 매년 2회 이상 정기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번 간담회는 총학생회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본교 대응'에 관한 질의응답 요청으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창원 총장과 각 부서의 처장 및 팀장 등 대학본부 관계자 16명과 박민수(컴공 4)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대표 18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학생대표 질의 후 관련 부서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제는 ▲등록금 환불 및 코로나19로 인한 수강권 침해 ▲교육부 회계부분감사 ▲삼선제 5구역 재개발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편의 등이었다.

먼저 박 회장은 오프라인 개강 연기와 온라인 강의 연장에 따른 등록금 환불 여부를 문의했다. 이에 대해 노광현 기획처장은 “등록금 환불은 수업 결손이 이뤄졌을 때

논의될 사안이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다”고 일축했다. 교육부의 「2020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권고안」에 따라 재택 수업과 과제물 등으로 수업을 구성해 결손이 없다는 것이다.

이어 학생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수강권 침해에 대해 ▲온라인 강의의 낮은 품질 ▲100% 실습·실기 강의 결손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의 시간 차이 ▲온라인 서버 용량 등을 질의했다.

학생대표는 “온라인 강의의 품질이 오프라인 강의의 품질만큼 좋지 않아 학생들의 불만이 많다”며 본교의 대책을 요구했다. 장명희 교육혁신원장은 “전 교수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교육과 지원을 하고 있다. 강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 중”이라고 답했다. 조혜경 교무처장 역시 “온라인 수업에 대한 불만사항과 건의사항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현재 본교 e-class에는 ‘재택수업 불편사항 또는 건의사항 제출’ 채널이 만들어진 상태다.

100% 실습·실기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강의 결손 질문에 조 처장은 “교내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수업의 경우, 컴퓨터 원격제어 시스템인 웹엑스(Webex)를 설치해 집에서 학교 컴퓨터를 접속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며 “오프라인 개강 이후 오전, 오후, 주말을 이용해 집중이수제를 실시하고, 종강을 미뤄 실습 시간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본교 측은 평소보다 수업의 질이 떨어질 경우 특강 등 추후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의 시간 차이와 온라인 서버 용량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박준영(무예 3) 사회과학대학 정학생회장은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1시간당 1학점인데 온라인 강의에서는 25분당 1학점”이라며 그 이유에 대해 물었다. 조 처장은 “교육부 기준에 따르고 있다. 곧 변경되는 개편안에 따라 50분 이상의 강의를 도입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관우 정보전산원장은 온라인 강의 서버 용량에 대한 질문에 “현재 충분한 서버 용량을 확보한 상태이며

바로 증설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회계부분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답변이 있었다. 노 처장은 “이번 교육부 감사에서 재단이 지적받은 금액은 법인회계에서 지출된 금액이고 등록금과는 무관하다”며, 산학협력단 운영비에 대해서는 “과건된 교수나 직원에 대한 일부 지원(부서운영비, 수당 등)이 부당하다는 감사 결과에 따라 전액 환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삼선제5구역 재개발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편의 시설에 대해서도 본교의 대응방안이 제시됐다. 최천근 학생처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성북경찰서, 성북구청 등 총 6개 관련 기관에 안심거리 조성 및 주기적 순찰을 요청한 상태”라며 “학교 내에서도 학생 자치 규율대를 편성해 등하교길에 순찰을 돌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흥승린 총무처장은 “교내에 푸드트럭 및 밥차를 설치할 예정”이라며, 제2의 학생식당도 설치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총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라는 불확실한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이며 그 다음이 수업의 품질과 결손”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꾸준한 피드백과 간담회 등 소통을 통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학생들에게는 학교의 빠르고 정확한 공지가 필요해 보인다”며 “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아 꾸준히 학교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희연 기자
heeyun96@naver.com

‘한성대IN’, ‘한성대-학생서비스’ 어플로 리뉴얼돼

본교 정보화팀이 지난 3월, 기존 ‘한성대IN’ 어플리케이션(이하 어플)을 리뉴얼한 ‘한성대-학생서비스’ 어플(이하 한성대 어플)을 출시했다. 리뉴얼 작업에는 본교 컴퓨터공학부 17학년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iOS 버전 개발은 천수빈(컴공 4)·김다현(컴공 4) 학생이, 안드로이드 버전 개발은 김성진(컴공 3) 학생이 담당했다.

리뉴얼된 어플은 e-포트폴리오(HOPF)와 연동되며, 하단 메뉴에는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종합정보시스템 ▲e-class ▲e-포트폴리오(HOPF)가 배치돼 있다. 또한, 본교 웹사이트와 동일한 디자인을 제공한다.

기존 한성대IN 어플은 정보가 변경될 때마다 어플을 업데이트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한성대 어플은 웹사이트를 연결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보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정보가

들어와 정보 추가로 인한 업데이트가 필요 없다.

정보화팀은 “이번 리뉴얼은 기능을 새롭게 추가하기보다는 주 사용자인 학생들의 편의성에 중점을 뒀다” 또한 “비교과 관련 정보 접근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향후 어플 개선에 대해 이동현(정보화팀) 팀원은 “학점계산기와 통학버스 운행정보, 한성대 개발자 센터 등의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라며 “그중 한성대 개발자 센터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를 Open API(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개 프로그램 개발체계)로 제공해 누구든지 쉽게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한성대 어플은 학생들을 위한 어플이다.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준수 기자
jseo53493@gmail.com

2020학년도 보궐선거, 온·오프라인 함께 진행

오는 4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2020학년도 동아리연합회 및 단과대학의 보궐선거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여파로 선거 유세부터 정책토론회, 투표 등 모든 과정에 온라인 방식이 도입됐다.

먼저, 이번 보궐선거에는 지난해 11월 후보자 미등록으로 선거를 치루지 않은 ▲동아리연합회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디자인대학 ▲IT공과대학 ▲상상력인재학부의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가 각 1개씩 출범했다. 기존의 각 선본은 강의실을 돌며 선거 유세를 진행했으나, 이번에는 ▲페이스북 페이지 ▲낙산의 메아리 ▲e-class 등 온라인 플랫폼에 포스터 및 영상을 게시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지난 1일에는 상상홀에서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활용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사전에 선착순 30인을 신청 받아 정책토론회에

참관하게 했으며, 참관이 불가능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네이버 폼으로 사전 질문을 받았다. 이후의 질문은 실시간 페이스북 라이브 댓글을 통해 전달됐다.

또한, 이번 보궐선거에는 온라인 전자투표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학생들은 선거전, 온라인 선거 업체인 ‘오투웹스(O2WEBS)’에서 온라인 투표소에 접속 가능한 문자 알림을 받는다. 해당 문자를 통해 투표자는 이름과 학번을 기입해 로그인하게 된다. 이후 발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선거목록을 확인해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장예준(사회과학 4)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오프라인 개강 연기로 인해 전면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대체된 것”이라며 “중선관위 및 각 선본이 원활한 선거 진행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니 학우분들의 많은 투표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안현경 기자
dksgsrud24@naver.com

후보자 주요 공약

동아리연합회 ‘커넥트’

- 동아리연합회 유튜브 채널 운영
- ‘동아리제’와 ‘동아리인의 밤’ 개최
- 우수 동아리원 공로상 수여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한빛’

- 학교생활 장려를 위한 다양한 지원
- SNS 활성화를 통한 소통 강화
- 학생회비 지출 내역 공개
- 복지사업 개선과 문화생활 장려

디자인대학 ‘스케치’

- 간식사업과 문화·예술 지원사업
- 디자인대학 배움터 진행
- SNS 활성화
- 기존사업 유지 및 보수

IT공과대학 ‘동행’

- 학내·외 소통 강화
-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
- 휴게공간 및 시설물 환경 개선

상상력인재학부 ‘해뿔’

- 카카오톡을 통한 소통 강화
- 학부 내·외 연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

교육부 회계부분감사 발표, 재단·본부 총 9건 지적받아

지난 3월 11일, 교육부가 '학교법인 한성학원(이하 재단) 및 한성대학교(이하 본부) 회계부분감사'의 처분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에서 재단과 본부는 2016년 3월부터 2019년 9월 16일까지의 모든 회계운영을 감사받았다. 결과에 따르면 재단은 ▲생계비 명목 금원 지급 ▲수익사업 미공고 및 정관 미기재 등 2건을, 본부는 ▲산학협력단회계 부담비용 교비회계 집행 ▲직무발명 미신고 ▲상조회비 교비회계 집행 ▲규정에 없는 수당 지급 ▲해임 교원 급여 지급 ▲가족수당 수령 부적정 ▲물품관리 부적정 등 7건을 지적받았다. 교육부는 앞서 1월 22일, 각 건에 대한 처분을 재단과 본부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9건 전체에 대해 관련자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재단과 본부는 "현재 교육부의 지적사항 9건 중 '생계비 명목 금원 지급'과 '가족수당 수령 부적정'은 조치 중이고 나머지 7건은 조치를 완료했다"며, "지난 3월 20일 이행조치를 교육부에 제출해 이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재단, 전 이사장 생계비 지급 및 행정 실수 밝혀져

재단은 설립자의 부인인 故이희순 전 이사장에게 지난 2012년 3월부터 그가 사망한 2018년 2월까지 달마다 생계비 명목으로 500만 원씩, 총 3억 6천만 원을 지급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재산을 출연·기증한 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개인적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자다. 그러나 이 전 이사장은 2013년까지 서초구에 아파트를 소유하는 등 생계비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대해 전장배(법인사무국) 사무국장은 "재단은 이 전 이사장이 2006년부터 설립자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생계비를 지급했다"며 "그가 2010년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생계비를 업무추진비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과 비상근이사였다는 점이 2011년 교육부 회계부분감사에서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시에는 교육부가 생계비 지급을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상 가능하다고 판단해, 문제가 된 업무추진비를 2012년에 생계비로 다시 전환해 지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교육부는 재단에 생계비 지급 금액 보전방안을 구상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재단은 ▲이 전 이사장의 상속인에게 해당 금액 상환 요구 ▲이사장 급여 동결 ▲이사회 기부금 및 발전기금 조성 등의 방안을 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재단은 '수익사업 미공고 및 정관 미기재' 건도 지적받았다. 지난 2017년, 재단이 수익사업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지상 13층 규모의 한성빌딩을 인수했지만 정관에 기재하지 않았고, 신문을 통해 광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학교법인인 수익사업을 진행할 때 법인의 근본규칙을 적는 문서인 정관에 이를 기재하고, 전국단위 신문에 공고하라'는 『사립학교법』 제6조 및 제10조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3조를 위반한 것이다. 전 사무국장은 "이는 행정상의 실수였다"며 "지적받은 이후 이사회 회의를 통해 한성빌딩을 정관에 기재했고 <문화일보>를 통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산학협력단, 교비회계 집행 및 직무발명 관리 미비 드러나

본부가 지적받은 7건 중 2건은 산학협력단(이하 산단) 관련 사항이다. 산단은 이번 감사에서 '산학협력단 회계 부담비용 교비회계 집행'과 '직무발명 미신고'를 지적받았다.

먼저 산학협력단의 부담비용을 교비회계로 집행한 부분이 지적됐다. 본부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산단에 교직원을 파견하면서 해당 직원에게 지원적 성격으로 부서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약 3,200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비회계를 다른 회계로 진출

교육부 회계부분감사 지적 사항

처분 조치 및 조치 상황

학교법인 한성학원

- 생계비 명목 금원 지급
- 수익사업 미공고 및 정관 미기재

- 전 이사장의 상속인에게 구상조치 및 장기화 예상에 따른 이사장 임금 동결(조치 중)
- 정관 개정 및 <문화일보>를 통한 공고 완료(조치 완료)

한성대학교

- 산학협력단회계 부담비용 교비회계 집행
- 직무발명 미신고
- 상조회비 교비회계 집행
- 규정에 없는 수당 지급
- 해임교원 급여 지급
- 가족수당 수령 부적정
- 물품관리 부적정

- 산학협력단이 사용한 금액 전액 회수(조치 완료)
- 미신고된 직무발명 전부 회수(조치 완료)
- 교비로 집행된 상조회비 전액 회수(조치 완료)
- 과지급된 급여 전액 회수(조치 완료)
- 12개월 분할공제를 통한 가족수당 회수(조치 중)
- 분실된 물건비용 감가상각 고려해 현금으로 회수(조치 완료)

재발방지 방안

- 감사실의 분리 독립을 통한 자체감사 역량 강화
- 미비 또는 불명확 규정에 대한 개정 및 신설
- 타 대학 감사사례 취합·적용을 통한 선제조치

할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 제29조 6항과 '산단의 수입과 지출은 모두 산단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를 토대로 본부에 해당 금액을 전액 회수 조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노광현 기획처장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학에서 산단으로 교직원을 파견했을 때, 교비로 인건비 지원이 가능해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비 지원도 가능할 줄 알았다"며 "지적받은 이후 해당 금액을 전부 회수했다"고 답했다.

직무발명 미신고 건의 경우, 5명의 교직원이 총 9건의 직무발명(특허)을 하고 이를 산단에 신고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한성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3조 1항 및 2항에 따르면 교직원이 직무발명을 했을 때에는 산단에 신고해야 하며, 산단 운영위원회 또는 산단 운영위원회가 지명하는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본부는 해당 특허를 전부 걸어 들이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교직원과 교수에 대한 직무발명 관련 공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본교, 규정 없는 교·직원 상조회 지원, 수당 지급 지적돼

규정에 없는 금액을 지급해 문제가 된 사항도 있다. 바로 '상조회비 교비회계 집행'과 '규정에 없는 수당 지급'이다.

교·직원 상조회는 교·직원 본인이나 가족들의 경조사를 지원하는 단체다. 상조회는 구성원의 회비로 운영돼야 하지만, 본부는 2016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직원 및 교원 상조회를 지원하기 위해 총 3,000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다. 이에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등의 경비로 한다'는 내용에 의거해 해당 금액을 회수하라고 처분했다.

이에 대해 이창원 총장은 지난 3월 19일 진행된 간담회에서 "상조회 지원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관련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라며 "해당 금액 전부 환수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또한 노 처장은 "단체협약이나 규정 신설을 통해 상조회 지원 지속 여부는 논의가 더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규정에 없는 수당의 경우, 본부가 교원에게 기타수당에 존재하지 않는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해 문제가 발생했다. 본부 대학원이 국제무역학과를 신설하면서 담당교수가 외국에 나가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했는데, 이 과정에서 본부는 해당 교수에게 외국인 유학생 관리비 명목으로 기타수당 총 1,952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교육부는 『한성대학교 교직원보수규정』 제2조 및 제27조에 따라 기타수당은 체력단련비, 정보비, 교재개발수당, 직무개발수당, 식대보조비, 통신비, 일직비, 야간강좌수당, 효도수당 등을 말하며, 외국인 유학생 관리비는 기타수당에 명시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노 처장은 "이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향후 규정을 추가해 지급할 것이고 해당 금액은 전부 회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본교 행정처리 실수도 있어

본부의 행정적인 실수에서 비롯된 사항도 있다. '해임 교원 급여지급', '가족수당 수령 부적정', '물품관리 부적정' 부분이다. 본부는 해임 교원 1인에게 약 760만 원을 과도하게 지급해 교육부의 지적을 받았다. 『한성대학교 교직원보수규정』 제9조 및 18조에 따르면 2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이 월중 15일 이후 면직 또는 휴직된 때에는 그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8월 7일 자료 해임된 1씨는 이에 해당되지 않았음에도 8월

급여 전액인 893만 원을 본부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노 처장은 "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실수"라며 "과도하게 지급된 760만여 원은 전부 회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또한 본부 교직원 총 10명이 가족수당을 부적정하게 수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한성대학교 교직원보수규정』 제20조에 따르면 부양가족 수에 따라 7인 이내로 가족수당을 지원하는데, 가족수당지급 대상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재무회계팀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교직원 10명은 가족수당 자격이 소멸된 상태인데도 해당부서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고 2014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가족수당 1,679만 원을 부적정하게 수령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해당 금액에 대한 회수를 요청했다. 노 처장은 "1년에 한 번씩 고지가 이뤄지지만 교직원들이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며 "공지 회수를 늘리거나 공지할 때 문제 사례를 함께 기재해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재무회계팀은 해당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해당 금액은 12개월 동안 분할해 급여에서 공제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7년도 본교의 재물조사를 통해 학교에서 사용·관리하던 노트북 9대가 망실된 사실도 확인됐다. '매년 1회 이상 재물조사를 실시했고, 손·망실이 발생했을 경우 동일한 제품이나 현금으로 변상해야 한다'라는 『한성대학교 기지재관리규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변상해야 했지만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노 처장은 "분실된 기지재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고려해 해당 학교에서 현금으로 변상 조치했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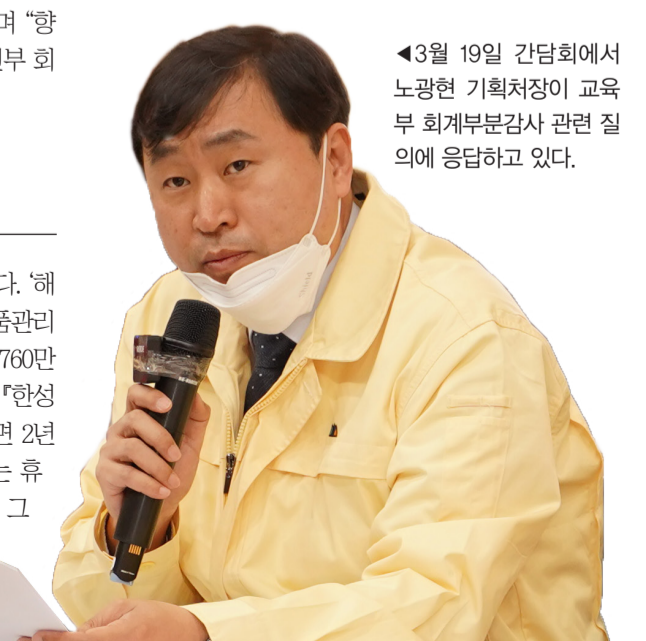
재발방지 대책 마련, 투명한 운영 계기로 삼아

본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좀 더 철저하고 투명한 학교운영을 위한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영기획팀에서 맡고 있던 감사업무를 감사실로 분리·신설했다. 신설된 감사실은 내부 감사와 외부 감사 업무를 전담하며, 동시에 타 대학의 감사사례를 취합해 교육부 감사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수당 관련 규정을 전수조사해 향후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노 처장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구성원들께 죄송한 심정"이라며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에 대한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본부는 교육부에 제출한 처분 이행 결과가 통과되는 대로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감사결과 발표 후 학교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있었다. 박민수(컴공 4) 총학생회장은 "이번 감사 결과로 재단 및 본부에 대한 학생들의 실망감이 크다"며 "감사결과에 대한 학교의 상세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입장표명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면 총학생회 차원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성훈 기자
csh8947@hanmail.net



◀3월 19일 간담회에서 노광현 기획처장이 교육부 회계부분감사 관련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말만 요란한 청년정치, 이번에도 '컷' 당한 청년들

오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가 진행된다. 여야 모두 민심을 잡기 위해 분주하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 연령이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지면서 청년 유권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각 정당에서는 청년정책 공약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청년 인재를 영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가 무색하게 각 정당에서 청년 후보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실제로 지난 29일, 21대 총선 후보등록 마감 결과 전국

253개 지역구의 등록자 1,118명 중 청년층인 20~30대 후보자는 71명으로, 전체의 6.4%에 불과했다. 국회의원 평균 연령 역시 17대 총선에서는 49.7세였지만 18대 50.8세, 19대 52.9세, 20대 53.8세로 상향추세를 보이며, 21대 총선에는 56.5세로 가장 높은 연령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청년 없는 청년정치

여야가 '청년정치'에 관심을 가진 것은 19대 총선부터다. '무상

급식'과 '반값 등록금'이 화두로 떠올랐던 2010년 지방선거 이후 2030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져자, 앞다퉈 '청년 영입' 경쟁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나 청년들은 선거에 입후보를 결심하는 것부터 부담스럽다. 선거에 나가기 위해 기탁금 1,500만 원을 포함해 그 이상의 금액이 필요하지만 청년에게 그만큼 돈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총선 예비후보자 2,488명 중 20대~30대 후보자는 110명으로 4.4% 뿐이었다. 이들이 모두 총선 최종 후보자 1,118명에 들었다 하더라도 9.8%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역·다선 의원에 밀릴 수밖에 없는 각 당의 구조와 제도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동수(정치크루) 대표는 "청년이 국회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현역에게 도전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그의 자리를 빼앗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선거제도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한편, 엄격하게 선거운동을 규제하기 때문에 현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조성진(정치발전소) 대표 역시 "청년들이 정치경험을 충분히 쌓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한정돼 있다"며 "청년정치인들이 더

많아지기 위해서는 젊은 신인들이 충분히 자신의 실력을 쌓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뒷세에 밀린 청년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정당에서는 청년 정치인들을 위한 청년전략공천지역, 청년벨트 등 여러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역시 고전을 면치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전략공천지역을 지정하고 젊은 정치인을 공천했지만, 이에 반발한 지역구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 동대문구를 청년전략공천지역으로 지정해 장경태(37) 전국청년위원장과 김현지(33)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코로나19대책추진단 부단장이 경선할 예정이었지만, 컷오프(공천 배제)를 당한 민병두(61)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것이다. 민 의원은 "인지도 부족한 청년 후보로는 경선에 이기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출마해 이기는 것이 당을 위한 것"이라며 출마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수도권에서 젊은 층 인구 유입이 많았던 8개

지역을 청년 벨트로 묶어 청년 후보들을 우선 추천하도록 했다. 청년 후보자에게는 퓨처메이커(Future Maker), 미래 창조자라는 이름을 달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5일, 퓨처메이커 2명의 공천이 갑작스럽게 취소됐다.

김소희(미래당) 공동대표는 "수도권은 지역색과 정치색이 뚜렷해 기성 정치인이나 정당이 힘을 발휘하는 곳이다. 정치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출마해 그들을 이기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 역시 "청년에게 좋은 자리는 내주기 싫어한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한다"고 지적했다.

정치장벽 넘으려는 청년들

그럼에도 청년들은 끊임없이 정치에 도전하며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년들이 정치권에 나설 수 있도록 공약을 요구하거나 청년 정책을 제안하기도 한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과 전국대학생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가 청년을 외면해 왔다는 사실이 많은 청년 문제에서 이미 증명됐다"며 "청년 공천 비용을 대폭 증가시키고 비례대표·전략 공천 지역에 2030세대를

30% 공천해 달라"고 지도부에 요구했다. 또한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민달팽이 유니온 등 41개 청년단체들은 2020총선청년네트워크를 구축해 청년을 둘러싼 주거·교육·노동 등 환경적인 문제를 대응하고 있다. 현재 ▲불평등세 도입 ▲교육공공성 강화 ▲주거빈곤 타파 등 총 10가지 가량의 정책 제안을 낸 상태다.

이같은 청년들의 움직임에 이 대표는 "청년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들의 시각과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필요한 이유다. 이들이 정치에서 힘을 발휘하려면 정치권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며 "평범한 청년들이 정치권에 들어와 일하면서 경험, 역량, 인맥을 쌓을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표는 "청년 문제가 정치에 반영되는 것이 더디기 때문에 청년들이 직접 나서서"이라며 "정당 내 청년위원회와 대학생 위원회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 형식적인 조직이 아닌 예산, 인사권을 부여해 정당 안에서 힘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희연 기자

heeeyun96@naver.com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청년기본법』, 청년 문제 해결의 열쇠일까

『청년기본법』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19대 국회에서 3번의 발의 후 임기만료로 폐기됐지만, 20대 국회에서 결국 재발의 돼 본회의에 통과한 것이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연령범위 규정 ▲청년의 권리 및 책임 명시 ▲청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 ▲청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청년실태 조사·공표 및 청년정책 연구사업 추진 ▲청년 권익증진 정책 추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청년위원회)와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지방청년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해당 법안은 청년의 연령범위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며 청년의 기본권과 의사결정권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이하 국회조사처)는 『청년기본법』 제정 의의와 향후 과제에서 "청년들의 연령범위를 『청년기본법』에서 정확하게 명시함에 따라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청년의 날을 대통령령으로써 법정기념일로 지정한다.

또한, 국무조정실에서는 5년마다 청년 정책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하며, 해당 계획에는 정책 기본방향, 추진 목표, 분석 및 평가 등이 포함된다. 청년 실태조사는 효율적인 청년 정책 수립을 위해 고용·주거·문화 등의 분야를 조사 및 공표하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지원을 위해 청년 정책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법적으로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청년지원 정책 수행의 강제성을 부여한 것이다.

그 밖에도 청년 권익증진을 목표로 ▲청년고용 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 ▲창업 지원 ▲주거 지원 등의 분야를 위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청년 정책에 관한 사항을 계획·조정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청년위원회를, 시도별로 지방청년위원회를 설치한다. 여기에서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부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은 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뿐 아니라 해당 위원회 위원 중 일부를 청년을 대표할 사람들로 구성하고 이를 위원장이 위촉한다. 국회조사처는 동일 자료에서 "청년위원회와 지방청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 위원 일부를 청년으로 구성해 청년들의 의견수렴과 정책참여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청년기본법』의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다. 권혁진(한국청년거버넌스) 대표는 "청년위원회 위원이 정당활동을 하는 사람들 위주로 위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정당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위원으로 위촉될 가능성이 있어, 다양한 정책안과 의견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청년의 연령기준을 법적으로 규정했다는 하나 타 법령 및 조례의 연령기준이 다를 경우 그에 따른다. 그리고 청년의 연령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생긴 장점이 퇴색되는 지적이 있다. 한편 국회조사처는 동일 자료에서 ▲중앙과 지방의 상호보완적 역할분담 ▲연계성 중심의 제도개편 ▲청년 정책 전달체계 강화를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2014년 첫 발의 후 6년 만에 빛을 본 『청년기본법』은 한국에서 주거·교육·문화·창업 등 청년들의 문제를 다방면으로 다루는 최초의 법이다. 과연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준수 기자

jseo53493@gmail.com

기자가 읽어주는 경제 TALK

주식시장 '멘붕' 막는 서킷브레이커

지난 3월 13일, 코스닥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뒤이어 19일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동시에 8% 이상 급락해 두 시장의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코스닥시장은 4년 1개월, 코스닥과 코스피시장 동시에 발동한 것은 18년 6개월 만이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락할 때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로, '주식거래 중단제도'라고도 불린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모든 주식, 파생상품의 매매거래는 20분, 혹은 그 이상 중단된다. 즉, 주식시장에서 과도한 시세 변동으로 우왕좌왕하는 시장 참여자의 투자를 진정시켜 비이성적인 시장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서킷브레이커의 발동은 3가지 단계로 세분화되며, 단계별로 정지된다. 1단계는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간 지속되면, 2단계는 양 지수가 전일 대비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 시점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상태가 1분 간 지속되면 발동된다. 3단계는 양 지수가 전일 대비 비교해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 시점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상태가 1분 간 지속될 경우 발동된다. 1·2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20분 간 매매

거래가 정지되지만, 3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당일 장이 종료된다.

이번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발동된 서킷브레이커 조치는 1단계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주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코로나바 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을 꼽는다. 이에 대해 본교 김상봉(사회과학부) 교수는 "코로나19가 중국과 국내를 거쳐, 미국과 유럽에 팬데믹(세계적 유행) 현상을 가져온 것이 생산, 소비, 투자, 수출에 영향을 주면서 금융시장의 자산가격 하락 및 변동성 확대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형렬(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센터장은 "이번 경우는 한시적 악재로 보았던 코로나19의 영향이 글로벌 경기침체를 촉진시켜 본격적인 침체국면에 빠질 것"이란 공포가 금융시장에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 서킷브레이커는 무엇을 의미할까? 김 센터장은 "서킷브레이커는 소비자가 경기침체를 크게 걱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소비자들은 현재 소비를 미래로 미루는 등 수요활동을 위축시키는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발동 이후 1,400선까지 떨어졌던 코스피지수가 현재 1,700선까지 반등했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지속돼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경기침체 우려 속, 한국에는 공격적인 경기부양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 센터장은 "확장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현재 한국은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는 간접적 경기부양정책에 불과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보호되고 사라지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희연 기자

heeeyun96@naver.com



트로트 '봄'이 트로트의 '봄'을 알리다

<편집자주>

대한민국에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다. 그야말로 트로트 전성시대다. 단순히 TV 프로그램을 넘어 콘서트와 음원까지, 사람들이 트로트를 즐기는 방식 역시 다양해졌다. 모든 미디어를 트로트가 장악한 지금, 무관심했던 사람도 트로트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한 기자 역시 매일매일 트로트를 흥얼거리고 있다. 트로트가 이렇게 즐겁고 신나는 노래였나? 트로트가 환감지나 칠순잔치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한 것은 명백한 착각이었다.

봄을 맞이한 트로트의 매력이 궁금한가? 혹은 여전히 트로트가 촌스러운 '뽕짜'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이 기사에 주목하자. 당신도 어느새가 트로트의 매력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인턴기자 dksgusud2@naver.com

변화하는 '뽕짜' 감성

4분의 박자를 기본으로 하는 트로트(Trot)는 빠르게 걷거나 뛰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다. '뽕짜 쿵짜 쿵짜자 쿵짜 네 박자 속에~' 우리 입에서 흥얼거리는 신나는 멜로디는 일명 '뽕짜' 감성을 표현한다.

과거 트로트에는 절정하고 기승 아픈 이야기가 많았다. 시대가 바뀌어가는 이유로 많은 곡들이 금지되거나 사라졌다. 1960년대 트로트의 여왕이라 불리는 이미자의 대표곡 <동백아가씨>는 '동백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뽕강개 평이 들었소라'는 가사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런데 당시 수많은 밤을 기다림으로 지냈던 민중의 한이 표출됐다고 판단한 군사정부는 <동백아가씨>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다.

이주는(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1970년대에는 록(Rock)이 젊은 층을 강타하면서 트로트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다"고 전했다. 트로트와 록이 결합했기 때문이다. 조용필은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부르며 트로트 고고(록과 트로트의 결합)를 이끌었다. 이후 현철은 경쾌하고 간드러진 꺾기 창법과 뛰어난 가창력을 겸비해, 이른바 '꺾기 끝판왕'으로 가요계에 나섰다. 그는 <사랑은 나비인가봐>와 <정춘을 돌려다오>에 구성된 꺾기 창법을 적용시켜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4대 천왕의 활약이 이어졌다. 송대관, 현철,

태진아, 설윤도가 활발하게 활약한 것이다. 이들은 <정 때문에>, <정춘을 돌려다오>, <옥경이>, <잃어버린 30년> 등 많은 히트곡을 남겼다.

하지만 반짝 빛을 발했던 트로트는 서서히 젊은이들의 음악에서 멀어져 갔다. 음악으로 혁명을 일으킨 서태지와 아이들이 해성처럼 등장했기 때문이다. 서태지와 아이들은 <난, 알아요>를 통해 가요계를 휩쓸었으며, 랩송(강렬하고 반복적인 리듬에 맞춰 가사를 읊듯이 하는 노래)으로 한국의 대중음악 장르를 이끄는 주역이 됐다. 이에 90년대 트로트는 관광버스에서 부를 법한 촌스럽고 코믹한 음악으로 전락했다.

2000년대에 들어 트로트는 숨겨졌던 '뽕짜' 감성을 다시 드러내기 시작했다. 장윤정, 박상철, 홍진영, 박현빈 등 젊은 트로트 가수들이 등장하면서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기 때문이다. 특히 장윤정은 <어머나>와 <짚짜라>를 히트시키며 아이들이 제패한 가요계에서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했다.

그리고 2020년 현재, 트로트는 오랜 시간을 두고 돌아 대중문화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새로운 봄을 맞이한 것이다. 이 교수는 "일명 'B급' 감성이 트로트와 만나 북고열풍을 일으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등장한 춤의 축제나 행사에 배경음악으로 틀어놓던 '뽕짜'는 한결 젊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young'한 감성을 타고 온 트로트

최근 '송가인이아이라'라는 유행어로 모든 세대에 사랑을 받은 트로트 가수, 송가인을 배출한 TV조선의 <내일은 미스터트롯>은 트로트의 부활을 알렸다. 애절하면서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안방을 녹인 송가인과 그 출연진들로 인해 대중은 트로트에 흠뻑 빠져들게 됐다. 트로트와 아이돌 시바이벌 쇼를 접목한 무대를 보여주면서 젊은 층의 관심을 이끌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이는 중장년층 외에도 '2030 팬덤'이 생기는 계기가 됐다.

이같은 기세에 맞물려 유재석도 활명 '유산술'로 트로트에 도전하면서 그 열기를 더해갔다. 그는 쉽고 발랄한 트로트인 <합정역 5번 출구>와 <사랑의 재개발>을 불렀다. 코믹하고 촌스럽지만, 입에 착착 붙는 노래가 대중적인 붐을 일으켰다.

이후 등장한 TV조선의 <내일은 미스터트롯>은 트로트 열풍에 기름을 부었다. <내일은 미스터트롯>은 방영 8회 만에 시청률 30%, 10회에는 33.8%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최우정(서울대학교 작곡과) 교수는 "최근 미디어의 확장으로 스트리밍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젊은 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모든 세대에 걸쳐 영향력을 미친 것"이라며 "문화 전반에 걸쳐 있었음에도 비주류에 속해 있던 트로트가 미디어를 통해 드러나고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TV로만 보던 트로트는 젊은 대중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장르 특성상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팬시인화, 팬미팅 등을 진행하면서 젊은 층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공연 역시 20대 예매자의 비율이 40%를 돌파하기도 했다. 이에 질세라, 58년생 베이비부터 세대를 뜻하는 신노년층도 동참했다. 이제는 중장년층이 스트리밍하고, 응원봉과 슬로건을 들고 응원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이 교수는 "이는 대중의 음악 소비 스펙트럼이 넓어 생긴 현상"이라며 "예능 프로그램을 비롯해 흥미로운 연출, 출연자들의 퍼포먼스 등이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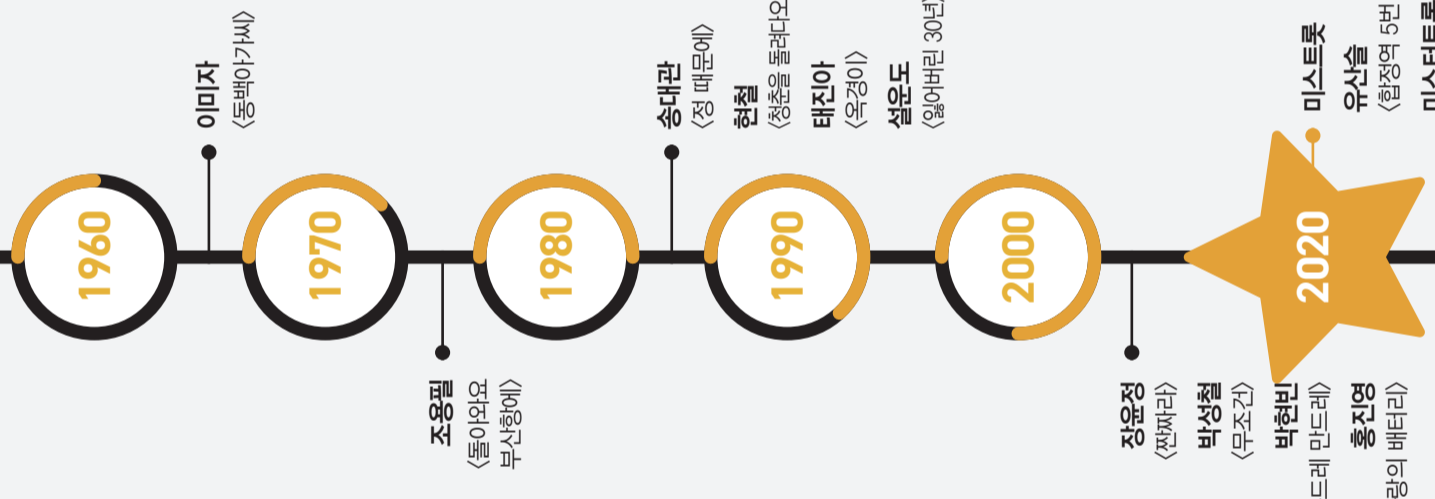


사진 출처: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 사진 출처: MBC <놀면 뭐하니?>



버려지는 자원과 버리는 마음을 터치하다

‘터치포굿’ 박미현 대표

자원은 ‘1초의 욕구’로 ‘3일간 제작’되며, 만들어진 제품은 ‘10분 만에 구매’되고 ‘1년 동안 사용’된 후 버려진다. 이는 결국 ‘100년 이 넘는 수명’을 가진 쓰레기를 남긴다. 그런데 여기 버려진 자원과 버리는 마음을 터치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환경뿐 아니라 품질까지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 ‘터치포굿’의 박미현(35) 대표다.

박 대표는 학창 시절부터 시민단체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 걸스카우트와 청소년 단체, 북한인권시민연합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다. 그는 정치보다 힘은 작지만 빠르고 긴밀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장점을 살려 사회적 기업인 터치포굿을 설립했다.

“터치포굿은 버려지는 자원들로 좋은 제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상품을 만들어 결과물이 사람들의 마음에 닿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죠. 사업은 크게 ‘업사이클 디자인’, ‘리싱크 솔루션’, ‘업사이클연구소’ 그리고 ‘도시형환경교육센터’ 등 4가지로 구성돼 있어요.”

업사이클 디자인(Upcycle design)은 개선하다(Upgrade)와 재활용하다(Recycle)를 합친 말로, 사람들이 버린 자원으로 상품을 만드는 사업이다. 재활용하다(Recycle)와 동기화하다(Synchronize)의 합성어인 리싱크 솔루션(Re-sync solution)은 사람들이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컨설팅

사업이다. 업사이클연구소는 버려지는 자원의 가치를 찾는 연구와 400여 가지 정도의 폐기물 DB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적합한 자원을 찾아주는 사업을 진행한다. 이어 등장한 도시형환경교육은 사람들이 이 모든 과정에서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사업이다.

이외에도 쓰레기의 발생을 줄이고자 최근 프리사이클 사업을 기획했다. 그는 프리사이클 사업으로 세제, 베이킹소다, 화분 영양제 뿐만 아니라 바다위시, 핸드워시, 샴푸 등 제품을 점차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증마크가 있는 제품을 제조사와 협의해 대량으로 가져온 후, 통만 가져오신 분들께 내용물을 가득 담아 드리려는 거예요. 낭비되는 통을 줄일 수 있도록 기획한 거죠.”

업사이클 제품 생산 이외에도 박 대표는 환경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바로 ‘숨은제비찾기’ 사업이다.

“제비는 자발적으로 사람 옆에 사는 새예요. 따라서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제비가 많아 합니다. 하지만 인구 밀도가 높다고 알려진 서울에서 제비를 찾기가 매우 힘들어요. 심지어 일부 8-9세 아이들에게 제비가 상상 속의 동물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렇기에 저희는 멸종 위기종이자 보호 동물인 제비를 소재로 한 캠페인을 진행해 제비의 상황을 파악한 후 정적으로 제안을 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환경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그에게 가장 애정이 가는 제품은 무엇일까. 그는 교실 바닥으로 만든 스탠드를 꼽았다.

“스탠드는 많은 인기를 끈 제품 중 하나인데요. 학교 졸업생이 선생님에게 선물하기 용이하도록 제작했어요. 이 제품의 주재료가 교실 바닥이라는 점과 제품 이름이 ‘그속에서 놀던 때가 그림습니다’라는 점이 인기 비결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그는 재활용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을 위해 수억 원씩 제작비를 들여 기계를 개발하기도 했다.

“플라스틱 페트병으로 만든 담요는 2013년부터 만들기 시작했지만 우리나라 페트병으로는 담요 생산이 쉽지 않았어요. 기계의 고장이 빈번히 일어나 결국 단종됐죠. 하지만 찾는 손님들이 꾸준히 늘고, 성능이 좋은 기계로 바꾸는 방법을 찾아 다시 진행하도록 계획했어요.”

박 대표는 버려지는 것들의 가치가 무한하다는 것을 알기에 일상생활 속에서도 환경을 먼저 생각했다. 그는 쇼핑할 때 포장지를 빼고 내용물만 받아온다. 동네 슈퍼에서 비닐을 받아오지도 않는다. 또 카페에는 텀블러를 들고 간다.

“제 행동에 대해 유난스럽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처음 시도가 어렵지 꾸준히 하다



보면 사는 사람은 자원을 절약해서, 주는 사람은 재활용할 수 있어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이처럼 환경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는 박 대표. 그의 목표는 확고하다.

“올해 터치포굿의 목표는 슈스쓰(슈퍼스타 쓰레기)입니다. 버려지는 것이 사랑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업의 목표예요. 환경을 생각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소비의 주체가 되는 대학생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버려지는 자원을 쓸모있게 바꾸는 터치포굿. 박 대표의 말처럼, 이제부터 ‘쓰레기’가 아닌 ‘쓰레기 속 가치’를 들여다보는 건 어떨까.

안현경 기자
dksgusrud24@naver.com



▲터치포굿 박미현 대표와 직원들이 회의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수막으로 만든 가방



▲플라스틱 페트병으로 만든 ‘코알라 담요’



▲‘코알라 담요’를 사용한 모습



**꿈을 향한
젊은 도전 ROTC**

Reserve Officer Training Corp는 대학재학생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 2년간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대학의 전공학문은 물론 군사지식을 갖추는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지원자격

- 연령 : 임관일 기준(만 20 ~ 27세 이하인 남·여)
※ 제대군인 응시연령은 군복무기간을 합산함
- 학군 61기 선발(남·여 모두 가능) : 4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 (5년제 학과 3학년 재학생)
- 학군 62기 선발(남·여 모두 가능) : 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 (5년제 학과 2학년 재학생)

지원서 접수 및 모집일정

- 기간 : 2020년 3월 16일 ~ 4월 21일
- 방법 : 인터넷 www.armyofficer.mil.kr
인터넷 접수 후 학군단으로 서류 제출해야 접수 완료
- 일정 - 1차 필기고사 : 4. 25.(토), 합격자 발표 : 5. 15.(금)
- 2차 면접평가 : 5. 25.(월) ~ 6. 12.(금), 합격자 발표 : 6. 26.(금)
- 최종 합격자 발표 : 9. 4.(금)



한성대 학군단 02-760-4178



‘작자 미상’ 아리랑의 발자취를 돌아보다

민족의 정(情)과 한(恨)이 담긴 아리랑은 우리나라의 대표 민요다. 일반 백성뿐 아니라 양반과 왕족까지 즐겨 불렀을 정도로 다양한 계층의 사랑을 받았다. 우리나라 팔도 곳곳에 전승되는 등 지역적 보급력도 실로 대단했다. 부르는 사람 마음대로 가사를 지을 수 있는 쉬운 구조 덕에 지금까지 알려진 아리랑의 개수는 3,600여 곡에 달할 정도다.

아리랑, 뿌리를 찾아서

아리랑은 입으로 전해져 내려와 그 유래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남아 있는 기록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아리랑이 고려 후기부터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박경수(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 교수는 “고려 말, 고려 속가로 불린 『청산별곡』에서 아리랑의 옛 노래 형태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려 이후부터 조선 전기에 쓰인 가사를 모은 『악장가사』에 수록된 『청산별곡』을 살펴보면,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알라’라는 후렴구가 등장한다. 일부 학자들은 국어의 음운 변화와 표기법 변화를 통해 오늘날 아리랑의 후렴인 ‘아리아리’, ‘아라리’ 등으로 바뀌었을 것이라 추측한다. 또한

『청산별곡』은 전체 8연으로, 후렴을 각 연 끝에 붙이고 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선창으로 부르는 사실과 후창으로 부르는 여음이 반복되는 형태는 오늘날 아리랑의 가창 형태와 같으며, 후렴 자체가 아리랑의 후렴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1790년 조선 후기의 천주교 신자였던 만천 이승훈이 필사한 『만천유고』와 19세기 말에 기록된 황현의 『매천야록』에서도 아리랑을 찾아볼 수 있다. 『만천유고』에 있는 농촌가사 ‘농부사’에서 ‘아로롱 아로롱 어희야’는 지금의 아리랑 후렴과 유사하다. 또한 『매천야록』에는 고종이 동궁을 보수하며 밤마다 광대들을 불러 ‘새로 생긴 사랑의 노래’를 연주하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아리랑 타령’이라고 기록돼 있다. 고종과 명성황후는 여기에 추임새까지 넣어가며 아리랑 타령을 즐겼다고 전해진다.

박 교수는 “1865년 경복궁 중건사업 기간에 전국에서 수많은 일꾼들이 모여들면서 아리랑이 전국적으로 퍼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제노역으로 지친 일꾼들이 ‘차라리 내 귀가 어두워져라. 아무것도 못 들으면 좋겠다’고 노래한 ‘아이롱’에서 ‘아리랑’이 비롯됐다는 것이다. 이후 아리랑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변주됐다.

‘다채로운 색’, 3대 아리랑

지역마다 사투리가 다르듯이 아리랑도 그 지역만의 음악적 취향으로 변주됐다. 다양한 아리랑 중 한국의 대표적인 아리랑으로 손꼽히는 것은 세 곡이다. 강원도의 아리랑을 기반으로 다듬어진 ‘정선아리랑’, 전라도의 특색으로 변주된 ‘진도아리랑’, 경상도 풍으로 변주된 ‘밀양아리랑’이 그것이다.

먼저 정선아리랑은 강원도 전역과 경상북도, 충청북도 지역에 전해진 민요로, 세 개의 아리랑 중 분포 지역이 가장 넓다. 최은숙(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정선아리랑은 노동요 ‘논매는 소리’에 기반을 두고 있어 가장 전통성이 짙은 토속 소리다. 정선아리랑은 아라리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여음아리랑’이라는 특수한 형식을 지닌 노래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음이란 랩(Rap)처럼 많은 가사를 빠르게 엮어가는 것을 뜻한다. 여음아리랑은 노랫말이 일반 아리랑보다 길어 노래 첫머리에서 중간 정도까지의 부분이 빠른 말투로 사설을 엮어간다.

진도아리랑은 전라도 지역에 전승된 민요다. 김혜정(경인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는 “전라도의 ‘산아지타령’이라는 악곡을 토대로 만들어진 아리랑 계열이라는 점이 진도아리랑의 주된 특징”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산아지타령은 남도 민요로 주로 논밭 일을 할 때 부르는 토속민요를 의미한다. 산아지타령의 메기는소리에 아리랑 계열의 받는소리를 조합하고 약간의 남도풍 선율로 바꾸어 놓은 것이 바로 진도아리랑이다.

영화 ‘아리랑’ 주제곡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밀양아리랑은 경상도 지역을 대표하는 민요다. 김 교수는 “새로운 악곡으로 거듭났다는 점이 밀양아리랑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전했다. 일제강점기에는 중국 만주에서 ‘독립군 아리랑’과 ‘광복군 아리랑’으로, 6·25전쟁에서는 중공군의 ‘파티잔아리랑’, 80년대는 ‘신밀양아리랑’, ‘통일아리랑’으로 변주됐다. 또한, 오늘날 해군 군악대의 행진곡 ‘아리랑랩소디’와 송창식의 ‘밀양머슴아리랑’도 밀양아리랑에 바탕을 둔다.



한국의 지역별 '3대 아리랑'

이렇듯 아리랑은 시작 시기를 정확히 가늠할 수 없지만 고려 시대 이후부터 우리 민족과 늘 함께했다. 또한 지역적으로 꾸준한 발전을 이뤘으며, 그만큼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 새로운 아리랑들이 우리 민족의 정과 한을 표현해 왔다. 김 교수는 “아리랑의

변주가 계속되는 것은 바뀐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아리랑은 우리 앞에서 우리 민족의 정서를 나타낼 것이다.

안현경 기자

dksgusrud24@naver.com

최기자의 사담

제주를 비춘 은혜로운 빛 김만덕

제주에 유배를 온 추사 김정희는 자신의 재물로 수천 명의 제주도민을 살려낸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이에 감복한 김정희는 친필로 은광연세(恩光衍世, 은혜로운 빛이 세상에 퍼짐)라고 적은 편액(널빤지나 종이·비단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려 문 위에 거는 액자)을 그의 후손에게 전했다. 그는 바로 ‘김만덕(1739-1812)’, 도탄에 빠진 제주에 은혜의 빛을 비춘 인물이다.

김만덕은 탐라(現 제주)에서 양인 집안의 딸로 태어났지만, 10살에 부모를 여의고 기녀의 집에 의탁하면서 기생이 됐다. 그는 매우 뛰어난 재주를 지녀 기생으로서 안정적인 삶이 보장됐으나 20살 무렵 기생의 삶을 버리고 복권을 청원해 다시 양인으로 복귀했다. 이에 대해 이정화(동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는 “김만덕은 풍족하고 안정적인 생활에 가치를 두지 않았다”며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기생 대신 진취적인 삶을 전개하고자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렇게 양인이 된 그는 제주의 특산품에 주목했다. 사탕과 말 갈기 등 제주의 특산품을 육지와 교역해 많은 수익을 올렸다. 또한, 물가를 잘 예측해 막대한 이익을 이끌어냈다. 그녀는 기업인으로서 뛰어난 장사수단을 보여줬다.

그러던 1795년(정조 19년), 제주도에 큰 흉년이 들어 수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었다. 이에 김만덕은 자신의 재물로 육지에서 쌀을 대량 구매해 굶고 있는 제주 백성을 구휼했다. 당시 김만덕이 구매한 쌀은 삼백 석에서 오백 석 정도로 이는 한 석이 144kg인 것을 감안할 때 실로 어마어마한 양이었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지자 정조는 그에게 소원을 물었고 그는 “임금님을 알현하고 금강산에 방문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출륙금지령으로 제주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제주여인의 상황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정조는 그 소원을 받아들여 그가 육지로 올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그녀가 육지에 있는 동안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그녀는 물질적인 가치 대신 정신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 금강산 유람과 같은 여행적 경험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민(濟民)’은 어려운 백성들을 구제한다는 뜻”이라며 “김만덕의 실천력은 이러한 제민의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다. 우리는 그의 제민정신을 공부해 실천하고, 후대에 계승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진 제공 : 김만덕기념관

최성훈 기자

csh8947@hanmail.net

신비한 스포츠 사전

창공을 가르는 V, 스키점프

스키를 신은 선수가 점프대에서 무서운 속도로 활강한다. 빠르게 활강하던 선수는 이내 V자로 스키를 벌리며 하늘로 날아올라, 마치 한 마리의 새처럼 창공을 가른다. 관객들은 너나할 것 없이 감탄을 자아낸다. 스키점프, 스키의 꽃이라고 불리는 종목이다.

스키점프는 ‘양력’의 원리로 날아오르는 종목이다. 양력이란 물체가 유체 속을 이동할 때 물체의 수직방향으로 작용해 이를 들어 올리는 힘을 말한다. 이때 물체의 윗부분에는 아랫부분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흐름이 나타난다. 흐름이 빠른 윗부분의 압력은 낮아지고 느린 아랫부분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압력차가 생겨, 물체를 들어 올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스키점프의 각 동작들은 양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스키점프의 가장 첫 번째 단계인 활강을 살펴보자. 활강은 스키를 신은 선수가 무릎과 허리를 숙인 채로 빠르게 경사면을 내려오는 과정이다. 이때 양력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인 속도가 관건이 된다. 선수의 활강 속도가 빠를수록 선수 주위 공기의 속도도 빨라져, 더욱 강한 양력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행 과정에서 속도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찰력(공기저항)을 최소화해야 한다.

선수는 이를 위해 상체를 활강면과 평행하게 만든다. 상체가 활강면과 평행하지 않을 경우 마찰력이 커져 활강 속도가 줄어들며, 반대로 고개를 과도하게 숙일 경우에도 무게중심이 뒤로 쏠려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음 단계인 도약과 비행에도 양력의 원리가 숨어있다. 활강면을 통해 도약대로 내려온 선수는 날아오르기 위해 도약 자세를 취한다. 이때 면적이 넓을수록 양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선수는 발목, 무릎, 허리 순으로 몸을 꼭 쥐고, 최대의 양력을 이끌어낸다.

이를 위해 고안된 자세가 스키의 뒷부분을 겹치도록 모으면서, 앞부분은 최대한 벌리는 ‘V자세’다. 1980년대에 처음 등장한 이 자세는 과거 주류 자세였던 ‘11자 자세’보다 양력이 작용하는 면적을 늘렸다. 따라서 11자 자세보다 28% 강한 힘을 받으며 10m 이상을 더 비행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스키의 면적에만 양력이 작용하는 11자 자세와 달리 신체

면적에도 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V자세는 사람의 키에 따라 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세가 다르다. 김광용(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는 “사람의 키를 171cm, 활강 속도를 2011년 스키점프 월드컵의 평균 속도인 초속 28m로 가정할 때 가장 멀리 날 수 있는 자세는 스키와 수평방향의 각도를 12.3°로 하고 동시에 스키와 선수 다리의 각도를 26°로 했을 때”라고 밝혔다.

선수들은 이외에도 양력을 받는 면적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한다. 스키의 길이를 늘리는 것이 그 예시다. 실제로 1998년 나가노 올림픽에서 일본 선수들은 작은 키를 극복하고자 눈에 띄게 긴 스키를 활용해 금메달 2개를 따기도 했다. 이에 국제연맹은 스키 길이의 경쟁이 과열될 것을 우려해 스키 길이를 선수 키의 145%까지로 제한을 뒀다.

이렇듯 스키점프에는 양력의 원리가 깊게 스며들어있다. 양력의 원리를 활용해 날아오른 선수들은 창공을 가르며 하늘을 정복하고자 한 인간의 소망을 이뤄냈다. 스키점프가 스키종목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최성훈 기자

csh8947@hanmail.net



· 삼 학 송 ·

사학재단은 사유재산일까?

최근 한성학원(이하 재단) 및 한성대학교의 교육부 회계부분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학내가 떠들썩했다. 회수 통보를 받은 금액이 무시할 수 없는 규모였기 때문이다. 특히 지적받은 9가지 사항 중 재단이 회수 통보를 받은 금액에 눈이 갔다.

3억 6천만 원. 재단이 2012년부터 6년 동안故이희순 전 이사장에게 매달 500만 원씩 지급한 금액의 총계다. 재단은 이 전 이사장이 이사장직에 있기 전인 2006년부터 자리에서 물러난 2018년까지, 그에게 생계비 혹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매달 500만 원씩 지급했다. 지급 명목이 무엇이 됐든, 이 전 이사장이 이사장직에 없었던 기간에도 '설립자'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돈을 지급한 것이다. 취재를 담당할 기자의 브리핑을 듣다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사학재단이 투자한 자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해보일 수 있지만 과연 이것이 용납될 수 있는 건지이다.

사실 사학재단이 설립자 혹은 그의 가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학교 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그간 대부분의 사립학교에서 공공연하게, 그리고 관례적으로 자행돼 왔다. 사학재단에 대한 통념이 '비리의 온상'으로 귀결되는 이유다. '적폐청산', '발본색원'이 사학재단을 대표하는 단골 수식어라는 것은 마냥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사실이다.

사학재단이 이사장을 중심으로 폭발 경영을 펼쳐, 설립자 가족이 학교에 자리를 하나씩은 맡고 있는 것쯤은 일도 아니다. 2017년 노용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사립대학의 설립자·임원 친인척 근무 현황'에 따르면, 전국 67개 사립대학에 근무 중인 설립자·이사장의 가족은 163명에 달했다. 4년제 사립대학 4곳 중 1곳에서 그 친인척이 학내 중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동의과학대학교에는 설립자의 삼남, 며느리, 5촌, 6촌 등 가족 8명이 총장·교수·처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단국대학교는 1947년 설립 이후 3대째 세습을 이어가고 있다. 이쯤 되니 사학재단이 가족기업인지 교육기관인지 의문이 든다.

누군가는 개인이 설립한 것이기에 사학재단을 설립자의 사유재산으로 볼 수 있고, 때문에 그 친자들에게 직위 세습과 지원금 지급은 당연한 처사라고 말한다. 투자 대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학재단의 정체성을 되짚게 된다. 이번 본교 재단의 사례처럼 공적 용도로 사용돼야 할 사학재단의 돈이 사적인 용도로 유용된다면, 과연 그 사학재단은 발전할 수 있을까?

이번 교육부 회계부분감사 이후 본교 재단은 결국 3억 6천만 원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고, 본사와의 인터뷰에서 재발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설립자와 그 부인이 사망한 이후, 그의 가족들이 재단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올해는 재단이 설립된 지 75년째 되는 해다. 과연 금번의 교육부 회계부분감사가 향후 재단 및 한성대학교의 투명한 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선이 편집국장



공공의 이익과 종교의 자유 사이에서

3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루 앞둔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나란히 걸려있는 3개의 현수막에는 진회를 중단하라는 서울시의 명령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를 비웃듯, 해당 교회는 종교의 자유가 탄압될 수 없다며 결국 예배를 강행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라는 '공공의 이익'과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우위를 논할 수 없는 두 가치의 대립은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최성훈 기자

■ 의화정

아무렇지 않은 이야기

얼마 전 좀 지칠 때가 있었다. 기분 전환으로 뭘 할까, 하다가 지코의 '아무노래' 챌린지를 보았다.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 개로 살래 잠시.' 이 부분이 와 닿았다. 원고 청탁을 받았을 때 '자유 주제(아무거나)'로 쓸 수 있다고 들었고, 뭘 쓸까 하다가 아무노래가 생각났다. 아무노래, 아무런 생각, 아무렇지도 않은 동작의 편안함에 아무런 어때, 하고 다시 털고 일할 수 있었다.

이십 대 때부터 오랫동안 정형화되지 않은 삶을 꿈꾸고 이야기했다. 문을 밀치고 나갈 의지만 있다면, 걷고 걷다 늘 새로운 세계로 통하는 숲한 문들을 열 수 있을 것 같았다. 차곡차곡 노력하여 성취하는 것보다 순간을 즐기고 자유를 만끽하는 삶을 동경했고,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나 실화를 다룬 '인 투 더 와일드'와 같은 영화를 좋아했다. 지금 와서 보면 조르바는 자유롭게만 사는 인물이 아니다. 인 투 더 와일드의 결말 역시 의미심장하다. 자유를 찾아가는 여정과 자유의 무게를 그때는 보지 못한 것 같다.

어쩌다 보니 젊을 적 동경을 뒤로한 채 단순한 매뉴얼대로 살고 있다. 일상이 쌓여 세월이 되니 3년 혹은 5년 후의 생활도 예측이 가능하다. 그것은 새로운 문이 아니다. 스스로 새로운 문들을 찾는 방법은 모르지만 세상이 바뀌고 열리는 건 보인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느꼈던 사회는 성과에 민감하고 경쟁이 치열하다. 자유에 대한 답은 있었지만 자유로운 소수를 주변에서 보기 어려웠다.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열정은 성과로만 환산되지 않고 개인의 삶은 선택으로 가득하다. 합심하여 쌓을 탑이 사라진 것처럼 아니면 탑을 쌓다 긴 휴식이 주어진 것처럼, 즐겁게 살래, 아무려면 어때, 라고 말하면서 춤추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필자가 담당할 과목은 '사고와 표현'이다. 글쓰기는 '사고'에 방점을 찍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갈수록 '표현'에 더 눈길이 간다. 사고를 많이 하면 표현을 잘 할 수 있다는 인식도 있지만, 표현이 다양해지고 자유로워지면 사고도 활발해진다. 춤추는 지코와 조르바 모두 달변가이다. 표현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가벼워야 한다. 아무렇지 않게 말이다.

이희영(사고와표현교육과정) 교수

낙산만평

박희연 기자



■ 기자수첩

진정한 청년다움이란

"(청년들이) 도전하고 실패하며 다시 일어서는 것에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답을 드릴 수 없지만 먼저 청춘을 보낸 선배로서 여러분이 청년의 시간을 온전히 청년답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지난해 2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한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전한 축사의 일부다.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청년답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청년다운 삶일까? 혹자는 이에 대해 '올로(YOLO)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을, 또 다른 혹자는 '치열하게 사는 것'을 청년답다고 칭할 것이다. 사람마다 '청년다움'을 정의하는 방식은 각기 다르지만, 기자는 본인을 가두고 일상을 규정했던 틀에서 벗어나 기꺼이 '성장하는 것'을 말하려 한다.

기자에게는 그 첫걸음이 아르바이트였으며, 두 번째 걸음이 학보사였다. 학보사는 늦은 퇴근, 수면 부족 등 사회생활의 일부를 경험해보는 기분을 선사했다. 이로 인해 초반부터 부모님과 갈등이 잦았다. 안전상의 이유로, 또 건강상의 이유로 아침저녁마다 잔소리로 나무라셨기 때문이다. "지금 몇 시인데 이제 들어오냐"는 말과 함께 그만두라는 단적인 말씀까지 하셨다.

하지만 본인의 힘으로 껌질을 벗지 못한 새는 알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법이다. 기자는 '알'에 갇히고 싶지 않았다. 언제까지 부모님의 품속에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부모님의 뜻에 맞서기 위해서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용기와 도전이 필요했다. 당시의 두려움이 무색하게 틀을 깬 지금,

기자에게는 그 도전이 '배움'의 시간이자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국어사전에서는 '청년'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청년기는 적극적으로 본인을 개발하고 성장하며 인생을 배워가는 시기다. 청춘이라 아프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다. 틀에서 벗어나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다른 걸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애물에 부딪히고 한계에 다다를 수 있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다.

그럼에도 여전히 두려움으로 망설이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알을 깨지 못하면 죽음에 이르고, 틀을 깨지 못하면 성장할 수 없다고.

안현경 기자

기자사령

퇴 수습기자 송재은(때선 1)

동정란

신재흠(교육대학원) 교수

신 교수는 지난 2월 「한국교육변천사(도서출판 동문사)를 발간했다.

〈한성대신문〉은 교수님의 동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면에 실을 동정이 있으면 한성대신문사(내선 4186)로 문의바랍니다.

한성대신문사 0287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Tel 02)760-4186

발행인 이창원 편집인김주환 전신종 편집국장 장선아 디자인 (주)나눔커뮤니케이션

■ 낙산에 올라

일단, 멈춰보자

그날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일단, 1교시에 수업이 있어서 일찍 일어났다. 공강 시간엔 수업과제를 대충 해결했다. 모든 수업이 끝나고 나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 관심이 있는 업종이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들 하기도 하고 자꾸만 돈이 필요한 곳이 생겨서, 일단 한 푼이라도 벌어야 했다. 일을 마치고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일단 대충 씻고 냉장고를 뒤져 요기를 하니 벌써 시간이 자정에 가까워졌다. 일단 자자.

잠깐, 오늘 내가 지나쳐온 것들 중 나의 의지는 얼마나 첨가되었나. 물론 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나의 선택으로 시작된 일들이다. 하지만 그 '선택' 안에 나의 의지가 얼마나 있다고 물으면

목소리가 점점 작아진다.

얼마 전, 발목을 돌릴 때마다 뼈에 소리가 나서 정형외과에 방문했다. 발목을 잇는 뼈와 뼈 사이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내 발목은 그 공간이 충분치 않다고 한다. 더 방치했다가는 관절염에 걸릴 수 있다.

'뼈와 뼈 사이의 공간'. 그것이 지금 내 발목에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그 공간이 과연 나의 발목에만 필요할까? 우리는 누군가 펼쳐놓은 카펫 위를 '일단' 뛰고 걷느라 각자의 틈새, 공간을 잃어가고 있다. 그 카펫의 재질이 좋거나 색이 고와서, 특별히 그 카펫이 마음에 들어서 그 위로 걷기보다는 당연하게 선택하는 것이다. 혹은 다른 사람이 그 위로 걸어가기에, 일단

그들을 따라 걷는다.

요즘 친구들의 앞모습보다 옆모습, 뒷모습을 보는 일이 잦아졌다. 그들 역시 나를 볼 때 그러하리라. 그건 아마 우리가 무언가에 자꾸만 쫓겨 서로 마주 볼 여유가 없어 서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같은 길을 가는 뻘뻘한 인파의 사람들 속에서, 컨베이어 벨트 위에 탄 것처럼 허영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다. 사람이 가득 차 있고 개인의 충분한 공간이 없는 곳에선 서로 부딪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 마치 나의 발목처럼. 그렇기에 잠시 눈을 감고 걸어갈 본인만의 카펫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작은 틈, 공간이 필요하리라. 다들 바쁘겠지만 우리 일단, 잠깐 멈춰보자.

이정호(인문 2)

제14회 사진공모전

빛으로 그려내는 프레임 속 세상 ✦



모집기간

4월 6일(월) ~ 5월 15일(금)

참가대상

본교 전 구성원(학부·대학원 재학생, 교수 및 직원)

주제

자유(주제에 제약 없음)

제출사항

응모작, 참가신청서
(교내 홈페이지 '비교과공지'에서 다운로드)

제출방법

- ① 온라인 제출 : hansungnews@gmail.com로 제출
 - ※ 응모작 규격 : 장축 4000px 이상의 jpg 파일
- ② 오프라인 제출 : 한성대신문사(중문 우촌관 앞 IBK기업은행 건물 2층)에 직접 제출
 - ※ 응모작 규격 : 8X10in(20.3X25.4cm) 인화 사진

수상작 발표

한성대신문 제557호 (6월 8일 발행)

시상내역

최우수작(1명) : 상장 및 상금 40만 원
가작(1명) : 상장 및 상금 20만 원

비교과 포인트

대회참가 5pt / 최우수작 20pt / 가작 10pt

문의사항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장선아 편집국장 010-9786-9709

- ※ 1인당 최대 3점 응모 가능합니다.
- ※ 참가신청서의 파일 이름은 '(제출자 이름)_제14회 사진공모전 참가신청서'로 합니다.
- ※ 작품의 파일 이름은 '(제출자 이름)_(작품 제목).jpg'로 합니다.
- ※ 타 사진공모전 출품작의 중복지원을 불허합니다.
- ※ 스마트폰, 필름사진, DSLR, 미러리스로 촬영한 사진 모두 규격 준수 시 응모 가능합니다.
- ※ 포토샵 등 합성과정을 거친 사진은 불허합니다. (단, 간단한 색보정은 허용)
- ※ 제출한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심사는 외부 심사위원이 진행합니다.
- ※ 최우수작이 없을 시 가작만 시상합니다.